

방제에서 범씨 직파까지...농사에 드론이 뜬다

전남, 일손부족에 드론 방제 규모 해마다 증가...5년 새 77.9%↑ 65개 농협 무인헬기·멀티콥터 등 117개 장비로 농가 방제 지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농가가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농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농업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드론 등을 활용한 공동 방제규모는 1247ha(996 농가·3646건)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농협별 실적은 보면 나주 영산포농협이 303ha로 가장 많았고 강진농협 279ha, 고흥 두원농협 235ha, 구례농협 173ha, 신안 도초농협 117ha, 해남 현산농협 60ha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공동 방제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4만6572ha(1만2285 농가)이었던 방제 규모는 ▲2015년 5만9056ha(1만3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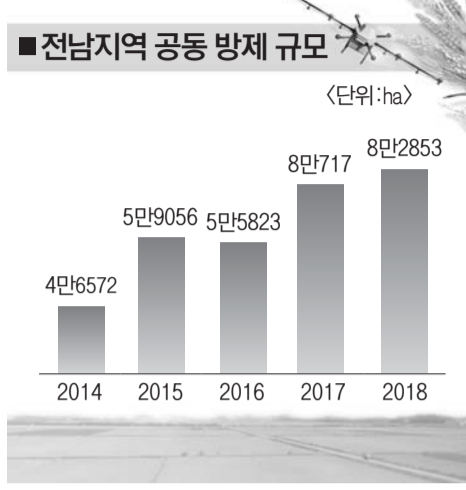
농가) ▲2016년 5만5823ha(1만4356 농가) ▲2017년 8만717ha(1만5024 농가) ▲지난해 8만2853ha(1만5990 농가)로 5년 새 77.9% 급증했다.

광주지역 공동 방제 규모도 지난해 296ha에서 올해 7월 기준 436ha로 크게 늘어났다.

드론 방제는 기존 농사에 드는 노동력의 절반까지 절감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드론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으로 꼽혀온 벼 병해충 방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제에 드론을 이용하면 하루에 40~50ha 면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



반 방제기를 사용하면 0.46시간(1000㎡ 기준)이 걸리던 것이 드론을 활용하면 눈에 들어가지 않고도 0.02시간 이내에 손쉽게 끝낼

수 있다.

비료·제초제 살포 뿐만 아니라 이앙 재배 대신 범씨를 직접 파종하는 '드론 산파' 재배에도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지역 65개 단위농협은 총 117대의 방제기를 보유하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무인헬기 62대, 멀티콥터 55대, 광역 살포기 20대 등이 있다. 농업용 드론은 가격이 2000만~4000만원 정도로, 농협은 드론 방제에서 농가가 약제비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동 방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승기 전남본부 양곡자재팀 차장은 "농촌 인구 감소를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공동 방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기계 무료 수리받으세요' 농림부, 다음달 6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농기계를 무료로 수리해준다.

농림부는 '2019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4주 동안 전국 33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봉사에 참가하는 농기계 제조업체는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신성기업, 한성T&I 등 7곳이다. 수리기사 89명, 차량 62대로 구성된 62개반이 활동할 예정이다.

점검·정비는 무료지만, 부품·윤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에 이동시켜 수리하게 된다.

올해 봉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동참해 '농기계 연료 품질점검서비스'도 병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시료 채취 후 농업인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소비자신고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우리 쌀 많이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8월18일 '쌀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광주송정역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에서 쌀 전달식과 쌀 식품 나눔 행사를 펼쳤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나주 배, 최대 시장 미국 수출길

올 수출 목표 4000t

올해 수확한 나주 원황배 112t이 미국에 수출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나주배원에농협은 지난 16일 나주배원협 부덕종합유통센터에서 '2019년간 나주 원황배 대미수출 첫 선적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나주시의회 의장, 김석기 전남본부장과 수출업체 대표가 참석해 수출 달성을 기원했다.

미국은 전남지역 농협 배 수출량의 75%

를 점유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나주에서는 2200여 농가가 전국 재배면적의 19% 정도(2000여 ha)에 해당하는 배 농사를 짓고 있다. 나주배원협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3300t을 미국과 대만, 베트남 등지에 수출해왔다. 올해는 수출 목표는 4000t이다.

배원협 나주배원협 조합장은 "올 초 저온 피해를 극복하고 우리 농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고품질의 나주 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 농지도 매입 가능'...청년층 농촌 유입 돕는다

농지은행 매입 기준 등 완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의 농지은행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지은행 사업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늘리기 위해 고령·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해 온 농지를 비농업인으로부터도 매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비싼 농지가격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지 매입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밭이 논보다 공시지기는 15%, 실거래가는 20%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해 밭 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의 밭 매입 확대를 위해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10년 만에 글로벌증시 'R의 공포' 확산 미국 장단기 금리 집중...변동성 불거피 반도체·2차 전지·국산화 대체주 등 주목

불황의 전조로 여겨지는 미국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2007년 6월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글로벌증시에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됐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원금 상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장기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투자를 기피하면서 단기국채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필자가 몇 차례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해 언급했듯이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10년물과 2년물 금리역전은 강력한 침체신호로 통하는데 지난 14일(미국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가격이 한때 1.623%까지 떨어지며 2년물 국채가격(1.634%)을 하회했다.

1978년 이후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가 역전된 사례는 7차례 있었다. 이중 금리역전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것은 5번이고 두 차례는 역전현상이 단기간 발생한 후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중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최근 사례로 금리역전 후 2000년 IT버블과 함께 경기 침체로 이어진 2000년 2월과 가장 최근 사례로 미국 부동산 둔화로 서브프라임사태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연결되며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2006년 1월을 들 수 있다.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글로벌 시장과 함께 국내 증권시장도 동반하락했다.

관건은 이번 금리역전현상이 단기간에 그칠지 장기화될 지가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와 달리 1990년 3월, 1998년 6월은 단기간에 그치면서 하락폭을 복원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상화되기까지 주가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었다.

장단기금리역전과 지수고점의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금리역전이 발생한 이후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수고점은 17~26개월이 지나서 발생했다.

이번 장단기금리역전현상으로 이번주 23~24일 잭슨을 미팅이 더욱 주목 받게 됐다. 버냉키와 앨런 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장도 잭슨을 미팅에서 중요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예방적차원이라고 명시하며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다.

9월1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3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가 예정되고 있고 홍콩 문제까지 가세되며 미중 무역협상이 어려워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파월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에 크게 승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사항은 연준(Fed)"이라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이번주에도 시장의 초점은 미국 장단기 금리에 집중되면서 금리추이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에도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줄이며 저점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주었고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과 동조화가 큰 상황이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변수에 의해 급락이 발생할 경우는 상장지수펀드(ETF) 저점 매수는 필요하다. 반도체, 2차 전지 및 국산화 이슈 관련주와 단기 급락 종목의 순환매적 반등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유아교육과	7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25	5	
총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형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1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길 96